

분산설치·예산축소·입지마찰 '산넘어 산'

광주 민주주의 전당 건립 어떻게 되가나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최근 광주·서울·마산 등 3개 지역으로 분산 설치되기로 확정됐다. 하지만 1400억원 규모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 예산이 900억원대로 축소되고, 이미지도 3곳으로 분산되면서 사업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가 이전부지로 낙점한 광주교도소 부지 역시 땅 주인인 법무부에서 구치소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어 전당 착공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서울·마산 3각축 건립=한국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광주유치추진위원회, 마산유치추진위원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광주·서울·마산에 분산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 청와대, 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서 서울 유치를 희망한다며 마산시가 3·15 의거 관련 단체와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 등을 중심으로 전당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007년 서울 덕수초교와 경찰청 인권센터를 전당 건립 후보지로 암축했다가 학부모와 경찰단체의 반발로 부지선정을 철회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옛 남산 중앙정보부터를 후보지로 정하고 3000만원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하기도 했다. 당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비도 1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대폭 축소했다.

◇1400억원 사업이 300억원씩

분산 유치=정부는 지난 2002년 사업 추진 당시부터 3만 5000여평 부지에

1400억원의 국비를 투입, 상설·기획 전시관, 문화관, 사료관, 민주테마공원 등을 포함한 한국민주주의 전당 만들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지난 2011년 옛

중앙정보부 터로 후보지를 검토하는

입장이다. 광주교도소는 5·18을 비롯한 여러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광주·서울·마산에 건립

예산 1400억→900억

광주교도서 부지 놓고

법무부 구치소 건립 고집

그나마 최근 광주와 서울, 마산 등 3곳으로 분산 설치되면서 축소됐던 사업비는 각 지역별로 300억원 안팎 9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11년 축소된 사업비와 대비해 사업예산도 크게 늘어났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서울은 200억원대면 되지만, 건물을 새로 짓는 광주는 300억원대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너머 산, 건립부지도 난항=광주시는 일단 3곳으로 분산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광주교도소 부지(10만8423㎡)에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교도소는 5·18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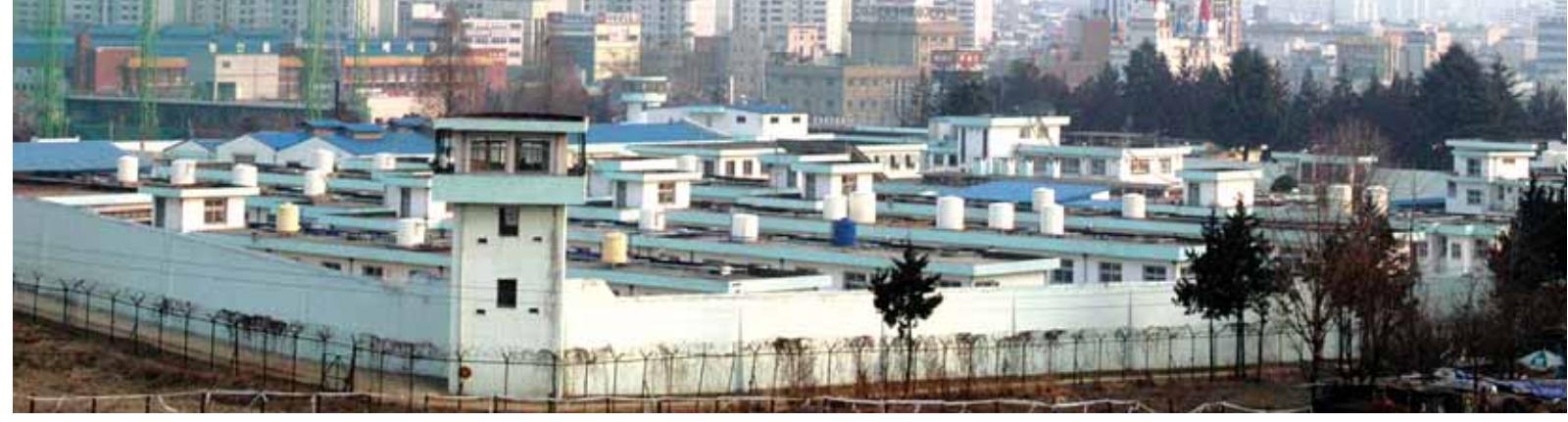
비롯한 여러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투옥됐던 상징적인 장소다.

시는 2014년 말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문흥동 광주교도소 부지를 법무부로부터 무상으로 얻어 받아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호남지역에 구치소가 한곳도 없다는 논리를 들어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은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번에 전당을 유치하게 된 만큼 법무부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민주주의 전당 건립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음력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오는 2016년까지 민주주의 전당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미 확보된 사업비(국비)와 부지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조만간 실무추진단을 구성, 각 지역별 민주주의 전당의 명칭과 규모, 콘텐츠 등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가 '한국민주주의 전당' 건립 후보지로 낙점해 둔 광주교도소 부지 전경. 그러나 땅 소유주인 법무부는 이곳에 구치소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즐겁고 신비로운 과학체험교실

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은선)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 3~5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은 실험실을 순회하며 어린이들이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의 첨단 분석기기를 설명하고, 직접 실험실 기자재를 이용해 과학 실험을 하는 체험기회도 제공한다.

과학체험교실은 내년 1월 9일부터 22일까지, 각 분야별로 2회씩 총 6회 실시하며, 9~10일은 보건교실, 16~17일은 동물교실, 21~22일은 환경교실을 운영한다. 1회당 교육인원은 20명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신청은 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vi.kwang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2-613-7563, 7591, 7653)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제수준 숙박업소 38곳 추가 지정

광주시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내년에 국제 수준의 숙박업소 38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주차장 가림막을 제거하고 접객대를 개방하는 등 시설을 정비하고 간단한 조식도 제공하는 크린호텔 12곳과 크린숙박업소 80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크린호텔 13곳과 크린숙박업소 25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외국인 편의 증진을 위해 일반음식점 가운데 임식테이블 설치를 원하는 업소 10곳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에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외국인 선호 음식점 등 300곳을 상대로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연 1~2%의 저리융자도 하기로 했다.

/홍행기자 redplane@redplane.co.kr

성서울 호남1위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임페리얼 퀸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임페리얼 퀸

임페리얼 퀸